



하루에 하나



2026.6.10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24.80원 (-10.20원)

KOSPI

8,096.93 (+612.52, +8.18%)

KOSDAQ

967.81(+56.42, +6.19%)

국고채 10년 금리

4.273(-0.07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폐지 제안 [김상만]
실전 퀀트	SpaceX, 수급 블랙홀 효과 초기? 중기?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견조한 성장 뒤에 남은 하반기 리스크 [김근아]

기업분석

에이텀	IPO 주관사 업데이트: 트랜스 기술로 여는 신성장 [권태우]
-----	------------------------------------

산업분석

태양광	Non-China 공급망의 가치, 매수 기회 [윤재성]
유틸리티	CHPS 규제 변화. 국내 연료전지 시장 축소 [유재선]
엔터테인먼트	이 가격은 못 참겠다 [이기훈]
2차전지	배터리 Valuation의 본질 [김현수]

글로벌리서치

증시취창	차세대 광트랜시버 기술도 걱정 없다 [백승혜]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NAVER, BNK금융지주, 오리온, 심텍

2026년 6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관련 공시 규칙 폐지 제안

해? 말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있어 반(反)ESG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으며 전기차 보급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탈 ESG행보는 이제 기후 공시 백지화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된다는 명분으로 기후 관련 공시 규칙(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의 철회를 제안했다. 해당 규칙은 당초 바 이든 행정부 시절 기후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3월 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바 있는 규정이다. 자신들이 발의한 규정을 스스로 폐기해버린 셈이다.

아무튼 해당 규정은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후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재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SEC는 금번 기후 관련 공시 규칙 철회의 주된 논리로 자신들이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익 대비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 그리고 공시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자본시장 참가 의지가 저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SEC는 금번 규칙 폐지안에 대해 8월 3일까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SEC의 결정은 실제로 기업들의 기존 공시 환경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당 규칙은 2024년 채택되었으나 재계와 공화당의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규정이기 때문이다(다만 SEC는 금번 폐지안에서 약 47%의 연차보고서가 규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주 정부의 재량권이 큰 미국은 기후 공시와 관련해서도 주별로 개별 법안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중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캘리포니아 기업 온실가스 공시법(SB253)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완화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 [참고: CrediVille/ESG: EU 지속가능규제 간소화 추진(25.12.17)] EU에서는 지난 2026년 2월 이른바 'Omnibus I 패키지'가 공식 채택돼 3월 18일 발효됐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부담 완화,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와 EU 탄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 연기 및 의무 대폭 완화가 담긴 패키지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CSRD 적용 대상이 '직원 1,000명 초과' 및 '연매출 €4.5억 초과 대기업'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존 법안 대비 약 80%의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주사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른바 기후변화 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EU 마저 기후 공시 정책 기조를 선회함에 따라 그간 갈팡질팡 해오던 미국은 더할 나위 없는 우군을 얻은 셈이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한편 세상 모든 나라(블록)들이 이 같은 반(反)ESG, 규제 경량화 추세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간 이른바 ‘기후 악당’으로 서방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온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의 접근방법을 받아들여 재정부의 주도하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4년 12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준칙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5년에는 상장회사 정보공시 관리규정을 개정해, "상장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후 거래소 자율규제지침에 따라 2026년부터 상하이·선전 거래소 상장기업 중 '특정 지수 편입 종목' 및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 450여 개사에 대해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추가로, 중국은 2030년까지 공시기준을 완성하고 의무 적용 대상을 상장사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중국기업들의 ESG 공시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홍보성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총 배출량 기준) 1위인 중국으로서는 기후 관련 공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또한 지난 2월 26일 한국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를 의결하였고 현재 법적 의무화 이전인 자발적 공시 단계에 있다.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각국의 기후 공시 제도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행 시점에는 공시 범위와 적용 방식에 적지 않은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들어 중동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ESG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시계의 추는 지속적으로 역행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현실적 제약이 부각되며 ESG 접근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듯이, 향후에도 ESG 관련 의제들의 추진동력이 추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러-우 전쟁 이전 방위 산업은 ESG 투자에서 배제 대상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 ‘공격이 아니라 방어는 생존권’이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재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독일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AGI)는 2025년 3월, 지속가능성 펀드에서 방산 기업 투자를 제한하던 두 가지 조건을 철회했으며, 덴마크 아카데미커연금(AkademikerPension)은 같은 해 6월 유럽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위 사례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전반적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 그토록 탈피하고자 노력해왔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은 ‘에너지 안보-에너지 형평성-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공존하기 힘든 ‘에너지 트릴레마’를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다.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에너지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밀려 후순위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아우르는 실용적인 한국형 모델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SpaceX, 수급 블랙홀 효과 초기? 중기?

실전 킷트 | 2026.06.10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2022년 초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느낌

나스닥100 지수 편입된 이후 SpaceX 추가 급등할수록 수급 블랙홀 현상 심해질 것

- 6.12일 SpaceX 초기 상장 비율은 4.2%(5.56억주 / 131억주)로, 2012년 Facebook(현 Meta) IPO 초기 상장 비율 15.4%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역대 대형 IPO 중 최소 수준
- 상장 후 6개월까지 락업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며 최종 100% 상장 예정. 해당 기간 동안 SpaceX 자체 물량 오버행에 따른 수급 부담은 상존. Facebook 사례에서 락업 해제 시기마다 나스닥 및 대형주 대비 주가 언더퍼프가 관찰됐으며, 상장 3개월 간 공모가 대비 -50%를 기록한 바 있음
- 결국, SpaceX 상장 직후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수급 블랙홀 임팩트는 초기에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락업 해제가 6개월에 걸쳐 분산되는 구조인 만큼, 초기 시점에서 동일 섹터 및 대형주로부터의 수급 이탈 충격은 크지 않을 것
- 다만, 더 중요한 점은 나스닥100 지수 편입 직후부터 반대 방향의 수급 유입이 구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 '26.5월 신설된 나스닥100 패스트트랙 편입으로 상장 약 1개월만에(7.7일) 편입 예정(6.30경 편입 발표 예상)이며, 러셀1000 및 Vanguard(CRSP) 지수는 상장 후 5거래일(6.19경) 편입
- 이 두 이벤트를 합산하면 7월 초까지 약 250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이후 락업 해제 시마다 비중 확대에 따른 추가 유입 발생. 액티브 자금 미포함)
- 단, S&P500은 4개 분기 흑자 요건으로 최소 1년 후 편입 가능성이 있어 근시일 내 기대 어려움
- Facebook 선례를 보면, 상장('12.5월) 후 7개월이 지난 '12.12월야 나스닥100에 편입됐으며 편입 전까지 주가 고전. 편입에 근접해서부터 Facebook 주가가 급등하며 당시 대형주 대비 아웃퍼폼하여(Apple 하락) 뒤늦은 수급 블랙홀 현상 야기, 이후 나스닥과 Facebook의 추세적 상승 동조화
- SpaceX는 상장과 나스닥100 편입 사이 기간이 약 1개월(Facebook의 1/7 수준)에 불과해 오버행 우려가 가격에 반영될 시간 자체가 짧음. 이 짧은 구간에 나스닥100 편입 기대 수급(유동시총 증분 = 오버행 = 패시브 매수 수요)이 오버행 부담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
- 나아가 6개월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락업 해제 자체가 나스닥100 지수 추종 자금의 비중 확대를 의미
- 락업 해제로 유통 주식이 늘어날수록 3x 플롯 캡(나스닥100 지수 새로 신설 요건)이 걸리며 지수 내 실질 비중이 상승하고, 이에 연동한 패시브 자금의 추가 매수가 발생하는 구조
- 만약 선점 수요가 몰려 주가가 급등한다면 그에 비례하는 수급 유입 효과가 기대되며, 해당 경우 수급의 블랙홀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음(스페이스X는 상대적 유리)
- 특히, 수급 집중도가 가장 높은 두 구간은 다음과 같음
- 8월(Q2 실적 후): 기본 20% 락업 해제, 실적 발표 후 10거래일 중 5일 동안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175.5) 이상 유지 시 10% 추가 해제(총 최대 30%)
- 11월(Q3 실적 후): 28% 고정 해제(성과 무관, 보너스 없음). 두 시점 모두 나스닥100 비중 확대에 따른 패시브 수급 유입과 락업 해제 물량이 교차하는 구간으로, 수급 블랙홀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SpaceX의 강한 아웃퍼프 예상)
- 이는 마치, '22년 초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직후 MSCI 및 코스피200에 동시에 편입되며 수급의 블랙홀 현상을 야기한 사례와 매우 유사할 것

2026년 6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견조한 성장 뒤에 남은 하반기 리스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FY2026년 4/4분기 GDP 성장을 컨센 상회했으나, 중요한 건 그 이후 성장률

인도 FY2026년 4/4분기(CY2026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YoY +7.8%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FY2026년 연간 성장률은 YoY +7.7%를 기록했다. 그간 인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민간소비 회복과 설비·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반해왔던 만큼, 이번 GDP는 소비와 투자가 실제로 성장세를 뒷받침했는지 핵심이었다. 우선, 민간소비는 YoY +7.0%로 전분기 +8.2% 대비 둔화됐다. 다만, 3/4분기 GST 인하 효과와 축제 시즌이 맞물리며 수요가 특히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4분기는 둔화보다 high-single digit 증가세가 유지됐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정투자 역시 YoY +10.8%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 투자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 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전체 성장률을 뒷받침했다.

다만, 이번 GDP는 미국-이란 전쟁 이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현재의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가 부담의 본격적인 반영이다. 원유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만큼, 유가 상승 시 원유 수입대금 증가와 경상수지 악화 압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 수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완충 요인이지만, 70달러를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30~50bp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 부담 확대는 루피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루피화 약세는 다시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물가, 환율, 기업이익 전반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민간소비 둔화 우려다. 앞서 언급한 고유가 국면은 연료비와 운송비 상승을 통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문순 약화 가능성도 하반기 소비 둔화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남서 문순 강수량이 평년을 하회할 경우 주요 카리프 작물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 물가 상승 압력과 농가소득 둔화를 자극할 수 있다. 농촌 소비가 인도 내수소비 회복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순 약화에 따른 농가소득 둔화는 하반기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GDP는 인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아직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지만, 하반기에는 상기 요인들로 인해 성장과 물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6월 RBI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담이 정책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RBI는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하고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했으나, FY2027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6.9%에서 6.6%로 하향하고 CPI 전망은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책 당국이 고유가와 루피화 약세, 기후 변수에 따른 성장 둔화와 물가 상방 리스크를 동시에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RBI는 환율 안정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당장 금리 인상을 통한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FAR(Fully Accessible Route, 외국인 보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국채)의 장기 국채 편입 확대 등 자본유입 확대 조치를 통해 루피화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에는 경기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인도 경제가 성장 방어와 물가환율 안정 사이에서 이전보다 어려운 정책 환경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반기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Not Rated

현재주가(6.9) 4,41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967.81
52주 최고/최저(원)	7,911/3,114
시가총액(십억원)	41.5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9,405.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57.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
외국인지분율(%)	2.48
주요주주 지분율(%)	
한택수 외 2인	27.3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54	48	20	70
영업이익	(8)	(6)	(3)	(7)
세전이익	(11)	(9)	(2)	(8)
순이익	(11)	(8)	(2)	(8)
EPS	(2,098)	(1,398)	(323)	(1,263)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0.0	(12.5)	(2.9)
PBR	0.0	0.0	2.5	8.7
EV/EBITDA	0.0	0.0	0.0	0.0
ROE	(878.2)	(341.3)	(19.7)	(304.2)
BPS	226	399	1,640	415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에이텀 (355690)

IPO 주관사 업데이트: 트랜스 기술로 여는 신성장

국내 유일 평판형 트랜스 기술 보유 업체

에이텀은 전압을 변환하는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변압기)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다. 구리선을 감는 기존 권선형과 달리 동박을 평면으로 가공한 평판형(플래너) 트랜스를 원천기술로 확보해, 모바일 충전기에서 TV·전기차·데이터센터로 적용처를 넓혀 왔다. 사업 부문은 트랜스 제조(본사·베트남)와 자회사 청한전자의 MLCC 유통, 지난해 인수한 디에스티의 선박·기계부품 정밀가공으로 나뉜다. 현재 부품 유통과 선박·기계부품의 외형 비중이 높으나, 평판형 트랜스는 신규 매출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 연구개발 인력 위주의 조직을 바탕으로 부품 제조사에서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권선형에서 평판형으로 이어지는 수요 전환과 기술 경쟁력

권선형 트랜스는 얇은 구리선을 수십 차례 감는 구조여서 대량생산과 수율, 부피·발열 측면의 한계가 뚜렷하다. 에이텀의 평판형은 동박 패턴으로 이를 대체해 크기와 발열을 함께 줄였고, 코일을 감는 공정이 없어 생산 자동화에 유리하다는 점이 핵심 차별점이다. 자동화 생산의 관건은 트랜스 높이를 낮춰 평판형으로 구현하는 데 있는데, 3cm 안쪽까지 낮춰 양산하는 곳은 동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핵심 권선 방식과 열 분산 구조도 국내의 특허로 보호된다. 전장향 트랜스는 한번 채택되면 5년가량 교체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높다. 최근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용 CM필터를 6년 장기 공급하는 첫 수주를 확보한 점은,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데이터센터 전원장치, 진입을 준비하는 신성장 영역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구조가 800VDC 고전압 인프라와 1MW급 랙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좁은 공간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SMPS(전원공급장치 모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에이텀은 아직 진입 준비 단계지만, SMPS에서 전기를 가장 먼저 받는 부품이 트랜스이고 열·효율 제어가 성능을 좌우하는 만큼 그동안 쌓은 기술을 적용할 여지가 크다. 최근 성호전자와 체결한 데이터센터·광통신용 전원장치 공동개발 협약은 단독 트랜스 공급을 넘어 완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3.3kW 모듈은 연내 KC 인증, 12kW급은 내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하며, 이어 50kW 모듈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사는 궁극적으로 광통신·양방향 고출력 SMPS라는 더 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자회사 동반 성장: MLCC 유통과 조선 부품

청한전자는 국내 상위권 MLCC 유통사다. 데이터센터 투자로 고부가 MLCC 수요가 늘고 단가가 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형은 물론 유통 마진과 보유 재고 가치가 함께 개선되고 있다. 디에스티는 선박 엔진의 실린더 부품을 정밀가공해 국내 양대 엔진사에 납품하며, 조선 호황에 더해 선박 엔진이 데이터센터 발전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전방 엔진사의 수주 잔고가 두텁고 고부가 이중연료(DF) 엔진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부품 단가와 물량 측면에서 우호적이다. 두 자회사의 호조로 전사 외형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06월 10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9일

OCI홀딩스(010060)

BUY | TP 550,000원 | CP 256,000원

한화솔루션(009830)

BUY | TP 60,000원 | CP 35,550원

태양광

Non-China 공급망의 가치, 매수 기회

6/8일 미국 SUNation Energy-Suniva 합병의 의미

6/8일 미국 주택/상업용 태양광 설치업체 SUNation의 주가가 DoD +420% 급등했다. 비상장 태양광 셀 제조업체 Suniva가 역합병(Reverse Merger)으로 상장사 SUNation Energy와 전량 주식 교환 합병을 결의한 영향이다. 거래 완료 후 통합법인인 Suniva 사명으로 운영되며, Suniva 기존 주주들은 통합법인의 지분 98.2%, SUNation 주주들은 1.8%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Suniva가 SUNation을 통해 나스닥에 우회상장한 셈이다. 6/5일 종가 대비 100% 프리미엄이 부여된 SUNation 1주당 가치 2.26\$ 및 6/8일 주가 5.88\$(시총 24mil\$)에서 지분율 1.8%를 감안한 통합법인 시총은 0.52bil\$(약 8천억원)~1.35bil\$(약 2조원)으로 역산된다. 이를 통해, 시장이 Suniva의 셀 Capa 1GW 당 EV를 최소 8천억원~2.0조원으로 평가(순차입금 Zero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화솔루션은 더 많은 규모의 AMPC를 수취함에 불구하고 전체 Capa에 대한 GW당 EV 1.1조로 상대적 저평가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래다. Suniva 태양광 셀의 1GW당 EV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현재 미국 내 모듈 Capa 70GW 대비 셀이 3.2GW에 불과해 셀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데다, 이미 Hemlock(폴리실리콘)-Corning(웨이퍼)와 수직계열화 구축을 협의한 상태라 Non-PFE 최종 가이던스 관련 불확실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Non-China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태양광은 추가 고공행진 중

미국 태양광 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주 First Solar는 역사적 신고가, T1 Energy는 4년 신고가를, 이번 주 SUNation은 1년 신고가를 썼다. Section 232 발표를 앞두고 Non-China 공급망을 구축한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영향이다. 반면, 한국 태양광 업체는 6월 초 이후 한화솔루션 -15%, OCI홀딩스 -27% 급락했다. 한국 태양광 업체들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단기 전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Non-China 공급망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국업체의 주가 급락은 펀더멘털보다는 단순한 주식 수급 이슈로 판단된다.

6~7월 모멘텀 풍부. 추가 급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

Section 232는 1) 상무부 보고서 제출 2) 대통령 최종결정(상무부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 3) 조치 시행(최종 결정 후 15일 이내)의 절차를 거친다. 업계에서는 3~4월경 상무부 권고안이 백악관에 이송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90일 이내인 6~7월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컨콜에서 First Solar와 TOYO Solar가 결과 확인 시점을 6월 말로 제시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T1 Energy 또한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세 부과 방식도 %보다 cent/W 기준이 미국 공급망의 경쟁력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게다가, SpaceX의 텍사스 태양광 셀 공장은 2026년 3월 건설이 시작되었고, 장비 설치도 4~5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어 조만간 SpaceX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규모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연초부터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은 상승 중이며 6~7월 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가 급락은 절호의 매수 기회라 판단한다. Top Picks는 OCI홀딩스와 한화솔루션이다.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2026년 6월 10일 | 산업분석_Update

Neutral**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9일

두산퓨얼셀(336260)

BUY | TP 70,000원 | CP 72,000원

SK이터닉스(475150)

BUY | TP 60,000원 | CP 34,150원

유틸리티

CHPS 규제 변화. 국내 연료전지 시장 축소

예고되어 있었던 CHPS 시장 변화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에서 수소만 분리한 규제다. 시장 개설은 일반수소와 청정수소로 나뉜다. 일반수소는 연간 1,300GWh 연료전지 대상 시장 개설이 이뤄졌다. 청정수소는 2024년에 첫 입찰이 시작되었고 석탄발전은 암모니아 혼소 20% 이상, LNG발전은 수소 혼소 20%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다. 기후부가 전력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 CHPS 제도의 변화가 예견되었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윤곽이 확인되었다.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감소

기후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 설정이다. 2026년 개설물량을 하향조정했고 2027년 이후 물량은 추가적인 고시 개정을 통해 설정할 예정이다. 기존 연간 일반수소 1,300GWh, 청정수소 3,000GWh로 입찰시장이 형성되었지만 2026년은 일반수소 930GWh, 청정수소 500GWh로 기존 물량 대비 감소했다. 2040년 석탄 화력발전 폐지 추진 일정에 맞춰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정수소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축소 불가피. 해외 진출 여부 확인 필요

일반수소의 경우 일부 부생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수증기개질법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다. 해당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CHPS의 본질적 의미에 부합하기 어렵고 부생수소 또한 그레이수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축소가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찰시장 개설물량 대비 70%를 조금 넘는 수준이 유지된 것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청정수소 물량 감소는 국내 수소 조달과 단가 측면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 6,500GWh 규모로 개설된 청정수소 입찰에서 6개 사업자 6,172GWh가 참여했음에도 1개 사업자 750GWh만 낙찰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연료전지 전용으로 개설되고 있는 입찰시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제조사 및 디벨로퍼의 입찰 가격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2026년 6월 10일 | 산업분석_Issu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하이브(352820)

BUY | TP 350,000원(하향) | CP 206,500원

에스엠(041510)

BUY | TP 124,000원(하향) | CP 73,300원

JYP Ent.(035900)

BUY | TP 79,000원(하향) | CP 53,5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 TP 63,000원(하향) | CP 41,150원

*CP 2026년 6월 9일

엔터테인먼트

이 가격은 못 참겠다

높은 괴리로 목표주가 하향하지만, 역사적 저점 마저 30% 이상 하회하는 가격

형 만한 아우의 부재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주가는 한한령/노재팬/버닝썬/뉴진스 등 역사적 저점을 형성했던 P/E 기준 하이브 약 30배, 3사 기준 15배보다도 최대 30% 하락한 상황이다.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와의 괴리가 높아 기획사 4사 모두 목표주가를 하향하지만, 2026년 예상 P/E 기준 SM 11배, 2027년 예상 P/E 기준 하이브 21배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당한 저평가라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하이브는 2026년 세븐틴 전원 입대 및 2028년 완전체 재개로 2027년 실적을 조정하며 목표주가를 350,000원(-13%)으로 하향한다. 다만, 2028년에는 세븐틴/뉴진스/캣츠아이/코르티스의 대규모 투어로 해당 그룹들의 매출 증분만 5~6,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나머지 3사에 대해서는 목표 P/E 기준을 22배로 하향했으며, SM과 JYP는 각각 10% 할인, YG는 빅뱅이 없는 2027년 기준으로 10% 할증했다. SM은 124,000원(-11%)으로 하향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쉬운 서구권 팬덤의 확대가 나타나거나 비핵심 자회사 매각이 성과를 내야 한다. JYP도 79,000원(-12%)으로 하향하는데 스트레이키즈의 군입대 일정이 정해져야 된다. 하이브가 BTS에 이어 세븐틴도 동반 입대에 따른 빠른 완전체 활동을 결정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모두 유리한 결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YG의 목표주가는 63,000원(-17%)으로 하향하지만 재계약 IP가 많지 않아 9월 신인 남자 및 내년 데뷔 예정인 신인 걸그룹이 흥행한다면 향후 몇 년간 저연차 IP들의 고성장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 확인 전까지 할증을 적용한다. 8월 재개되는 빅뱅의 20주년 투어 일정도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이후 강한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

주가 반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이다. BTS의 분배 비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만 확인된다면 BTS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 레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늦어도 10월 전에는 뉴진스의 4인조 컴백 가능성이 높으며, 뉴진스가 4세대의 핵심 그룹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에 따라 반등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 반등이 나타난다면, 세븐틴의 2028년 완전체 활동 재개 또한 작년 하이브의 주가 흐름처럼 2027년에 꾸준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5세대인 캣츠아이와 코르티스가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의 투어를 발표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이브가 극단적인 저평가를 해소한다면 나머지 3사 역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로는 SM의 가격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9월 신인의 성과에 따라 YG의 상승 베타가 높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6월 10일 | 산업분석_Industry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6월 09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BUY | TP 530,000원 | CP 388,500원

삼성SDI(006400)

BUY | TP 857,000원 | CP 503,000원

2차전지

배터리 Valuation의 본질

배터리 섹터의 高-Multiple

배터리 섹터 투자 판단 시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배터리 산업이 그동안 부여받아온 高-Multiple 근거에 대한 해석이다. 高-Multiple의 근거가 배터리의 Specialty 지위에 있는 것인지, 장기 Q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향후 De-rating의 전개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Specialty인가?

투자의 영역에서 Specialty란 깊은 해자를 구축하여 장기간 고수익성이 유지되는 재화를 뜻한다.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공급자 우위 구도가 유지되며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속성을 갖는다. 즉, “고수익성의 안정적 유지”를 Specialty 범주 포함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배터리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정비 비중이 낮고 변동비 비중이 높은 원가 구조 특성상, 구조적으로 고마진을 확보하기 어렵고, 원재료 가격에 따라 수익성의 변동폭도 크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를 반영했느냐 여부다. 2022년 초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부터 시장은 배터리 산업의 원가 구조 및 저 수익성 한계를 충분히 인지해왔다. 시장이 기대한 배터리 산업의 정상 마진은 늘 5% ~ 10% 수준이었다. 즉 배터리가 non-Specialty 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배터리 섹터의 高-Multiple 역시 애초에 Specialty 논리에 기초해오지 않았다. 따라서 수익성 리스크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 배터리 산업의 De-rating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핵심은 Q 성장

배터리 섹터의 高-Multiple은 Specialty 논리가 아니라 Q 성장 논리에 기초한다. 특히 최근에는 ESS 시장의 성장 동력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부족(Energy Shortage)과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로 이동하며 Q 성장의 근거가 더욱 탄탄해졌다. 2026년 3월, 미국 정부와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납세자 보호 서약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On-site 발전용 ESS 수요는 Q 증가 논리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다. 배터리의 지위 변화도 중요하다. 배터리는 단순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전력망,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 인버터 등 에너지 관련 핵심 부품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Q 증가 논리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동안 배터리 산업의 高-Multiple 논리는 가파른 Q 성장 논리에 기초해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De-rating이 전개될 만한 시점에 와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高-Multiple 근거 여전히 유효

배터리 섹터 주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반등하며 1년 가까이 상승세 지속됐으나, 지난 5월 이후 하락 전환했다. 이번 하락은 미국 공장의 ESS 출하 증가 과정에서 초기 램프업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마진이 박한 산업이므로 수익성 변동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해당 이슈는 단기적인 원인(후공정 팩 조립 지연)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익성 회복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한다. 수익성 회복이 OPM 10%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AMPC 제외 기준) 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현재의 高-Multiple이 수익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적은 주가와 상관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논의라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부족 및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급망 탈중국 논리가 공고하다면 그동안 통용되어왔던 Valuation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 총액 90조원 도달은 늘 매수 기회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셀 메이커 중심의 매수를 권고한다.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2026년 6월 9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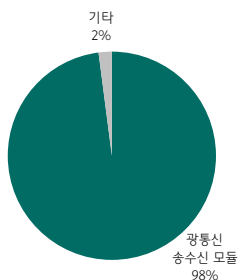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1022.23 CNY
CP(6.8) 1154.99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심천 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통신 장비
홈페이지	www.zj-innolight.com
시가총액(심액HKD)	1,307.6
시가총액(조원)	292.9
52주최고/최저(HKD)	1320/105.11
주요주주 지분율(%)	
SD ZHONGJI INVEST HLD	10.89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6.95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0.4 102.6 964.0
상대	29.9 83.1 879.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3,862	38,240	87,664	133,310
영업이익	5,938	13,401	33,244	51,668
순이익	5,171	10,797	27,676	43,739
EPS(CNY)	4.7	9.8	23.1	37.7
EPS(YoY, %)	136.0	107.6	136.2	62.8
ROE(%)	31.0	44.2	56.0	48.8
PER(배)	26.2	62.8	50.7	31.1
PBR(배)	7.2	22.8	23.7	14.0
배당률(%)	0.4	0.2	0.3	0.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중지쉬창(300308.CH)

차세대 광트랜시버 기술도 걱정 없다

2026년에도 순이익 3년 연속 100% 이상 성장 전망

중지쉬창(Zhongji Innolight)은 가파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트랜시버 기술을 선도 중인 글로벌 1위 업체다.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조가 고속화, 고밀도화 되면서 GPU와 CPU, 서버와 서버, 랙과 랙을 연결하는 고속 광연결 장비 수요가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사양 광트랜시버인 800G/1.6T 제품 수요는 2025년 2천만개에서 2026년 5천만개 이상, 2027년 7천만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6년 1.6T 및 실리콘 포토닉스(SiPh) 기반 광트랜시버로의 제품 고도화가 중지쉬창의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지쉬창의 순이익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YoY 138%, 109% 성장에 이어 2026년 174%로 3년 연속 100% 이상의 가파른 이익 성장세가 전망된다. 중지쉬창 경영진은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CAPEX 전망을 기반으로 이들의 광트랜시버 수요가 2027~2028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세대 NPO/XPO 제품 양산에 따른 실적 가시성 높은 상황

중지쉬창은 향후 NPO(Near-Packaged Optics), XPO(eXtra-dense Pluggable Optics), OCS(Optical Circuit Switching) 등 차세대 제품 램프업으로 인한 실적 가시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영진에 따르면 scale-up 용도의 NPO 및 XPO 제품은 2027년부터 대량 양산 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OCS 제품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 향후 상용화에 따른 실적 기여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특히 scale-up(서버/랙 내부 GPU 연결), scale-out(데이터센터 내부 서버/랙 연결), scale-across(여러 AI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 연결) 관련 수요가 중지쉬창 실적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cale-up과 scale-out 기술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전체 데이터 처리 용량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광트랜시버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CPO 도입에 따른 대체 리스크는 NPO와 3.2T 기술로 방어 가능

중지쉬창의 핵심 사업이 현재 플러거블 광트랜시버 제품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차세대 광연결 기술인 CPO(Co-Packaged Optics) 기술 상용화로 인한 점유율 축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지쉬창도 2027년까지 CPO 기술 돌파를 이뤄내고, 2027년 하반기 또는 2028년부터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PO 기술 도입 초기 중지쉬창이 NPO 기술과 3.2T 제품에서 기술적 돌파를 이뤄낼 경우 CPO 기술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실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지쉬창은 코히어런트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 기술과 향후 상용화될 3.2T 광트랜시버 시장에서도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적인 NPO 기술 개발이 향후 주가에 중요한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 Issue

2026년 6월 9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스페이스X의 큰 그림, 100만 기와 100GW

스페이스X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신청서에 따르면 저궤도에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2028년까지 100GW의 태양광 캐패시터를 구축을 선언했다. 스페이스X의 'AI Sat Mini'는 개별 위성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위성형 데이터센터다. 현재 미국 모듈 캐패시가 약 65GW임을 고려할 때 100GW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우주 데이터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인 우주 태양광은 밤낮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도 없어 지구 태양광 대비 약5배 면적효율이 높다는 장점은 유효하다. 게다가 우주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로 자연 냉각이 가능하다.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44%

로켓 무게는 90% 이상이 연료이기 때문에 구조체를 제외한 수하물의 무게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우주태양광 발전(SBSP)에서 패널의 무게가 제조원가보다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초경량을 강점으로 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가 차세대 우주 태양광용 패널로 개발되고 있다. 저궤도에서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자가 치유가 가능한 화학적 특성 역시 강점이다. 아직 페로브스카이트 단독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며 실리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한 탠덤 형태로 효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 경우 페로브스카이트가 단파장(자외선) 빛을 흡수하고 남은 장파장(적외선)을 마저 흡수해 이론적효율은 최대 약 45%까지 올라간다. 기존 실리콘 대비 1.5배 수준이다.

6월 12일 상장 앞두고 페로브스카이트 비중국 원자재 공급망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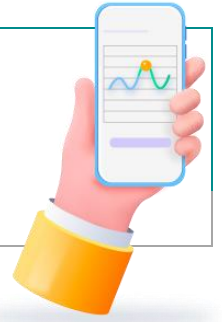
2026년 6월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 바스트로프에서 10GW 규모 태양광 셀 공장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통해 비중국산(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을 공급받고 중국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의 우주태양광 태양전지는 주로 갈륨비소(GaAs)가 사용되며 미국의 Spectrolab(보잉 자회사), SolarAero(로켓랩 자회사)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미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열, 빛과 환경에 민감하고 균일한 도포가 어려운 페로브스카이트의 물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용화까지는 장기안정성과 대면적화의 달성 여부가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퍼스트솔라는 2027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 Section 232, OBBBA PFE 조항, AD/CVD 최근 미국의 태양광 정책들이 결국 모두 비중국을 추구함을 고려할 때 페로브스카이트 역시 비중국 원자재 공급망의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6월 12일 스페이스X의 상장은 페로브스카이트의 양산 경쟁에도 촉매제가 될 것이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1,455	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720	-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4,215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960	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98.16	7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44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8.33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32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6/8	664,000	612,000	-7.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NAVER (035420.KS)	6/8	255,500	257,000	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광고 효율 개선과 스마트스토어·C2C 고성장이 실적 방어의 핵심 축 • 하반기, AI의 서비스화로 인한 광고/커머스 실적 개선 기대
BNK금융지주 (138930.KS)	6/8	17,240	17,060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금융지주 중 가장 양호한 지역 기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보유 • 비은행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이익 안정성 확보 유리
오리온 (271560.KS)	6/8	132,600	132,900	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심텍 (222800.KQ)	6/8	103,000	115,100	1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 기반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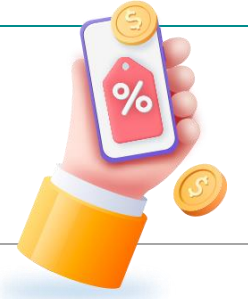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01%	-3.91%p	+75.97%	+4.1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8	412,500	393,000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1,970,000	4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56,000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215,000	115.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22,000	9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92,300	0.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4,500	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137,000	28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9.22%	-20.99%p	+52.63%	-19.2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분기 GDP F (1.8, 이전치 2.1%)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13.4, 이전치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GDP A (3.8%, 이전치 3.6%) 중국 5월 수출 (19.4%, 이전치 14.1%) 중국 5월 수입 (27.4%, 이전치 25.3%) 미국 4월 무역수지 (\$-56.1b,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PPI (E 5.6%, 이전치 4.9%) 중국 5월 PPI (E 3.8%, 이전치 2.8%) 중국 5월 CPI (E 1.3%, 이전치 1.2%) 미국 5월 CPI (E 4.2%, 이전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2.8%,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2.4%,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9k, 이전치 225k) 미국 5월 전년대비 PPI (E 6.4%, 이전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2.3%)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4.8)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E 37,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E --, 이전치 7.1%)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E --, 이전치 -2.3%)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E 4.2%, 이전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6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 이전치 1.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